

“6만2000대 팔겠다”…이름 빼고 싹 바꾼 제네시스의 자신감

현대자동차가 차체 강판을 비롯한 소재부터 내외장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그룹 전반의 기술 역량을 총 집약한 ‘신형 제네시스’를 공개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도약에 나섰다. 현대차는 최첨단 안전 및 편의 기능을 대거 적용한 신형 제네시스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BMW 등과 경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중소형 중심에서 대형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어서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신형 제네시스는 2008년 첫 출시 이후 6년만에 풀체인지 된 완전 신차다. 특히 디자인과 주행 성능을 혁신하고 최첨단 안전 및 편의 기능을 대거 채택했다. 내년 국내의 시장에서 6만2000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이는 제네시스 연간 판매가 최대였던 2011년(4만6300대)보다 34% 늘어난 공격적인 수치다.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의 차체 강성 노력을 통

초고장력 강판 51.5%까지 늘리고
현대차 첫 자동 제동 시스템 적용

출시 6년만에 첫 풀체인지 모델로
美·유럽서 프리미엄 세단 본격 경쟁

해 안정적인 승차감과 핸들링, 탁월한 정숙성은 물론이고 스티어링의 명확한 응답성 등 최상의 주행 감성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장력 강판의 적용 비율을 51.5%까지 늘리고, 차체 구조용 접착제 적용 부위를 123m로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차체 강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응답성이 뛰어난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R-MDPS)’과 구동력을 전후 구동축에 자동 배



26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신형 제네시스 발표회’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병석 국회 부의장(오른쪽부터)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분하는 전자식 4륜구동(AWD) 시스템 ‘에이치트랙(HTRAC)’을 현대차 최초로 적용했다. 또 차간 거

리 자동 조절 및 자동 정지와 재출발 기능까지 지원 하는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과

전자제어스펜션(ESC), 가변 기어비 조향 시스템 등의 전장 기술도 적용했다.

신형 제네시스는 다양한 첨단 안전 시스템과 설계 구조를 통해 안정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앞선 차량의 급제동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긴급 상황시 차량을 비상 제동하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을 현대차 최초로 적용했다. 또 탑승자 안전을 위해 △선회 제동 시스템(ATCC) △앞좌석 프리세이프 시트벨트(PSB) △하체상해 저감장치(EF D) 등도 탑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제네시스는 세계 시장에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가격은 △3.3 모던 4660만원 △3.3 프리미엄 5260만원 △3.8 익스클루시브 5510만원 △3.8 프레스티지 6130만원 △3.8 파이니스트 에디션 6960만원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BMW 사륜구동 시스템 x드라이브 ‘눈길 점령’

미끄러짐 등 악조건서 안정적 주행
‘뉴 5시리즈’ 탑재 모델 41%로 급증

BMW의 사륜구동 시스템 ‘x드라이브’가 겨울철을 맞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x드라이브는 두 차축에 동력을 가변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빗길과 눈길 등의 노면 및 주행 상태에 따라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0%에서 100%까지 변환시킨다. x드라이브는 1985년 3시리즈에 첫 적용된 이후 진화를 거듭해 BMW의 대표적인 첨단 주행 기술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겨울철 눈길 주행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BMW그룹코리아(대표 김효준)는 지난달 판매된 ‘뉴 5시리즈’ 중 x드라이브 탑재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가변식 사륜구동 시스템인 x드라이브가 기본 장착된 BMW의 SUV ‘X시리즈’

지난해 BMW 전체 판매에서 x드라이브 모델 비중이 2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국내 수입차 베스트셀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520d’에 x드라이브 탑재 모델이 추가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x드라이브는 노면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미끄러짐 등의 악조건에서 각 바퀴의 구동력과 마찰력을 완벽하게 제어,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자동차의 구동력을 노면에 최대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각 바퀴의 구동력이 0%에서 100%까지 변환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0.1초에 불과하다. 특히 다이내믹 퍼포먼스 컨트롤(DPC)과 차체 자세제어장치(DSC) 등의 전장 시스템과 연동,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장성택 BMW그룹코리아 이사는 “x드라이브는 각 바퀴의 미끄러짐을 비롯해 각종 차량 정보를 신속하게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광케이블 기반 통신 네트워크(BMW BUS 시스템)와 전자 제어 기술이 바탕이 된다”며 “운전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성능을 높일 수 있어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SW가 車 핵심 경쟁력”…실력으로 뒷받침

현대엔소프트, SW 아키텍트 인증 시험 8명 합격자 중 5명 배출

“미국의 기업 인수 사례를 보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얼마나 스마트 서비스를 잘 지원하는가가 자동차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한소정 현대엔소프트 책임연구원은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 연구원이 속한 GIS 아키텍처팀은 최근 ‘사고’를 쳤다.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KOSTA)가 실시한 ‘제5회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인증(KCSA)’ 시험에서 총 8명의 합격자 가운데 5명을 배출한 것. 첫 도전에서 이처럼 좋은 성적을 냈다.

삼성SDS, LC CNS 등 대형 IT서비스 기업이 독차지하던 인증 시험에서 자동차 관련 업체가 절반

이 넘는 합격자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더욱이 유일한 레벨2 합격자 역시 현대엔소프트(정순홍 파트장)가 배출했다.

KCSA는 2011년 첫 시행 이후 5회에 걸쳐 합격자가 총 39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지원 서류만 40~50쪽에 달한다. 서류가 통과 되더라도 1시간가량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실제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엔 합격한 직원 5명은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엔소프트는 올해 초 GIS 아키텍처팀을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SW 중요성에 눈을 떴다. 현대·기아차에 탑재되는 내비게이션을 만들다보면 세계 각 지역에 맞는 제품 SW를 따로 개발해야



정순홍 파트장과 한소정 연구원, 서정혁 연구원, 구본철 파트장(왼쪽부터) 등 제5회 KCSA 시험에 합격한 현대엔소프트 연구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SW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레고 블록처럼 입맛에 맞게 끼우면 훨씬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현대오트모버, 한국IBM 등 IT전문기업을 두루 거친 유명수 사장의 통찰이 빛을 발했다.

성영주 GIS 아키텍처팀장은 “차량이 점점 IT화 되는 상황에서 SW가 자동차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SW 관련 자격증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글로벌 자동차 산업 돈보기

〈17〉부품가격 담합 조사 확산

북미·유럽 등 대상 확대…조사 품목도 광범위

미국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부품가격 담합에 의한 입찰 부정 혐의로 9개 부품 업체에 대해 총 7억 4000만달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업체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던 일본 다카타는 10월 10일 같은 혐의로 7130만달러의 과징금을 내겠다고 발표해 적발된 업체는 10개사로 늘고, 과징금도 총 8억1130만달러로 증가했다.

외견상 특징은 적발된 부품 업체 중 일본 업체가 8개사로 80%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과 한 업체당 과징금이 8113만달러(약 86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적발된 부품 종류가 시동 모터, 교류발전기, 점화 코일, 에어컨, 콤펙서 등 23개 품목으로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이다. 2010년 미국 정부가 입찰 부정 행위 조사에 착수했을 때에는 에어백이나 시트벨트 등 일부 품목에 초점을 뒀지만, 이번에 적발된 품목 리스트는 입찰 부정 거래가 만연함과 동시에 조사 품목이 대폭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부품 업체 담합 행위 조사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독일 당국은 이번 미국 정부의 과징금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 9월 26일 자국 내 주요

부품 업체들의 사무실을 전격 수색했다. 조사 대상은 마그나인터내셔널, 포레시아, IAC그룹, 보게르, 오토네움 등 독일에서 트렁크 트림과 플로어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일본 당국도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10여개 부품 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조사를 벌였다.

놀라운 것은 현재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품목과 70개 이상의 부품 업체들에 대한 입찰 부정 행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경쟁 정책 담당 고위 책임자가 지난 9월 25일 조지타운 대학 연설에서 밝힌 내용으로, 향후 세계 각국의 입찰 부정 행위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 그는 EU 집행위원회 자체 조사에서 미국 정부 관리들과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공개해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품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매우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최근 글로벌 부품 업체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성신 비열악전선통 대표 samleesr@gobmr.com

재규어 랜드로버, 내달 13일까지 ‘윈터 캠페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대표 데이비드 맥킨타이어)는 겨울에도 최고의 차량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3 윈터 캠페인(2013 Winter Campaign)’을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윈터 캠페인에 따른 무상 점검 서비스 외에 주행 안전성을 배가시킬 겨울용 휠과 타이어 관련 서비스인 ‘윈터 휠&타이어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을 보유한 모든 고객이며, 전국 14개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다. 서비스 기간은 이달 25일 시작으로 윈터 캠페인은 내달 13일까지 3주간, 윈터 휠&타이어 프로그램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윈터 휠&타이어 프로그램’은 겨울용 휠과 타이어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기획됐다. 휠은 25%, 타이어는 20%를 할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내년 4월까지 겨울용 휠과 타이어를 보관해주는 ‘타이어 호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2013 중소·중견기업

Asia Pacific Top10 Forum

TOPIC 창조경제 시대의 경영 컨설팅의 역할

경영컨설팅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경영컨설팅 산업의 비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 공유!

일시 2013년 11월 29일(금) 14:00~17:35

장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연수원 3층 상하이홀

참가비용 무료

주최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후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매일경제교육센터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13:30~14:00	포럼 등록	사전등록 확인 및 현장 등록
14:00~14:30	개회식	개회사 : 한창희 교수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환영사 : 사공진 학장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격려사 : 성낙영 과장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축사 : 김병권 본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마케팅본부
14:30~15:10	주제발표 1 (해외연사)	Management Consulting in the Innovation Economy (Prof. Vidyandand Choudhar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15:10~15:50	주제발표 2 (해외연사)	What academic research can offer to consulting: The case of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Prof. Kunsoo Han, McGill University)
15:50~16:00		Coffee Break
16:00~16:15	주제발표 3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박광호 교수, 한양대 경영컨설팅학과)
16:15~16:30	주제발표 4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컨설팅 (한수희 부사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6:30~16:45	주제발표 5	경영컨설팅트 육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황승준 교수, 한양대 경영컨설팅학과)
16:45~17:00	주제발표 6	중견기업 현황과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의 역할 (허명준 이사, 중견기업연합회)
17:00~17:15	주제발표 7	글로벌 비즈니스 창업 현황과 사례: KOTRA 지원사업 (이종건 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창업창업팀)
17:15~17:30	질의 응답 및 토론	사회 : 한창희 교수, 한양대 지식서비스연구소
17:30~17:35	폐회	포럼 내용 정리 및 폐회사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장)

문의 및 신청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 지식서비스연구소

| TEL: (031) 400-5036, 5038

| web: http://iks.hanyang.ac.kr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Knowledge Services